

가자지구 학살 1000일

허울뿐인 휴전 속 계속되는 학살과 점령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7만 3,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17만 3,200명 이상에 달합니다.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생존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사실상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유엔은 외부 물자 유입 없이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라고 경고합니다.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2026년 6월 23일)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인종학살의 핵심 수단으로 팔레스타인 아동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입니다.

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 가자지구 전체 사망자의 30퍼센트에 달하는 최소 2만 179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아동이 건물 잔해에 묻히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정밀 무기를 동원해 청소년들을 '미래의 테러리스트'로 낙인찍고 표적 저격을 감행했습니다.

의료·교육·보건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의도적인 파괴는 아동의 생존을 극도로 위협합니다. 학교 건물 대부분이 파괴돼 66만 8,000명 이상의 아동이 교육 기회를 잃었습니다. 극심한 기아로 영양실조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안지구에서는 어린이 1,655명 이상이 구급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기소조차 없는 '행정 구금'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스라엘 의회 부의장이 "가자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테러리스트"라고 발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자의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적이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말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미국 정부의 확고한 지원 아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학살 지원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지난해 유엔 보고서는 가자지구 인종학살을 여러 국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집단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 온 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학살 국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100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연대와 반전 운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인은 한국 시위대를 향해 "연대를 위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결코 혼자 아님을 일깨워 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종청소와 점령, 전쟁을 종식하려면 더 큰 목소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합시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130차 집회와 행진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멈춰라!
학살 국가 이스라엘과 관계 단절하라!

🕒 7월 25일(토) 오후 4시

📍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팔레스타인인에게 배우는
전통 자수(타트리즈) 하루 교실

— 실로 이어온 저항의 이야기

🕒 7월 11일(토), 7월 18일(토) 오후 6시~8시

📍 서울 나무 평생교육원(경복궁역 도보 5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웹사이트 ▶

재한 팔레스타인인, 중동·북아프리카인 등 여러 이주민,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합니다 | 문의: 010-2546-5560



1,000 Days of Genocide in Gaza Stop Ethnic Cleansing! Cut Ties with Israel!

Since October 2023, the number of Palestinians killed by Israeli attacks has exceeded 73,000, and the number of injured has reached over 173,200. Of the 2.3 million residents of the Gaza Strip, more than 90 percent of those who have survived have effectively become refugees. The United Nations warns that without the inflow of external supplies, the survival of Gaza's residents is impossible.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the UN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June 23, 2026, the Israeli military deliberately targeted Palestinian children as a key means of committing genocide in the Gaza Strip. This constitutes a clear war crime against humanity.

Between October 2023 and October 2025, at least 20,179 children—accounting for 30 percent of all fatalities in the Gaza Strip—lost their lives. Thousands of children were buried under building rubble or went missing. The Israeli military deployed precision weapons to brand adolescents as “future terrorists” and carried out targeted killings.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social infrastructure—including medical, educational, and health facilities—poses an extreme threat to children's survival. With most school buildings destroyed, more than 668,000 children have lost access to education. More than 1,655 children have been detained in the West Bank, and more than half of them are held in “administrative detention” without even being charged.

Just as the Deputy Speaker of the Israeli Knesset stated last year that “every child born in Gaza is a terrorist from the moment of birth,” Israel designates the children of Gaza as enemies and terrorists from the moment they are born, thereby justifying their extermination.

These atrocities continue with the unwavering support of the U.S. government. U.S. support for this

genocide must cease immediately.

Last year, a UN report condemned the genocide in the Gaza Strip as a “collective crime” carried out with the complicity of several nations. This includes South Korea, which has been exporting weapons to Israel. The President's criticism of Israel must not remain mere words but must lead to concrete government action. We must sever ties with Israel, a genocidal state, and immediately halt arms exports.

Over the past 1,000 days, a powerful wave of solidarity with Palestine has surged across the globe.

A Palestinian expressed gratitude to the South Korean protesters, saying, “Every single act of solidarity you take reminds us that we are never alone.”

To put an end to ethnic cleansing, occupation, and war, we need a stronger voice and more concrete action. Please join us at the Palestine Solidarity Rally and various solidarity events!

Palestine Solidarity 130th Protest & March

🕒 25th July(Sat) 4PM

📍 SEOUL Kyobo Bookstore, Gwanghwamun

Traditional Palestinian Embroidery Workshop with a Palestinian Instructor

(Tatreez)

— Threads of Resistance

🕒 July 11(Sat) | July 18(Sat) 6~8 PM

📍 Seoul Namu Lifelong Education Center
(5-min walk from Gyeongbokgung Stn.)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Palestine
solidarity activities

website ▶



Contact: people.freepalestine@gmail.com